



‘화장실에도 문화를 심자’ - 부산광역시

2000년 전국체전과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등 국내외의 대형행사를 앞두고 도시의 얼굴이자 문화수준의 척도로 여겨지고 있는 화장실문화 개선운동을 범시민적으로 펼쳐가고 있는 부산시청을 방문하여 활동사항을 들어본다.



환경국 하수도과 과장 안명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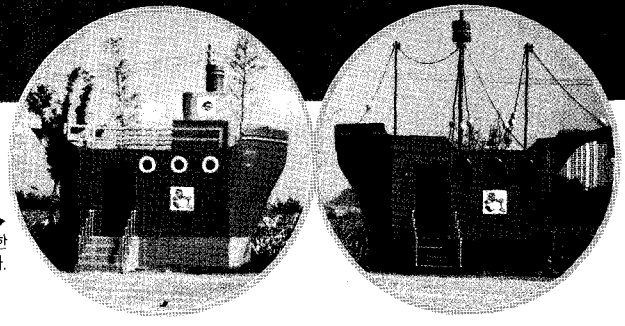
화장실은 도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성패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찾기 쉽고 이용하기 쉬우며 청결하고 수준있는 화장실, 질서있고 깨끗하게 사용하는 높은 시민의식이 우리 부산시가 달성하고자 하는 화장실문화 개선의 목표입니다.

화장실 문화 개선사업

우선 이용자의 측면에서 화장실은 어디에서나 찾기 쉬워야 하는데 도심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찾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다른 도시도 비슷하겠지만 그렇다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만한 마땅한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 건물화장실의 개방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LG계열 주유소 172개소에 「화장실 마음놓고 이용하세요」라는 플랜카드를 게재하여 개방되고, 5월에는 부산은행 174개 점포마다 「우리은행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하세요」라는 스티커와 현수막이 게재되었습니다. 업소에서는 화장실 개방을 선언하였으나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수 없고, 시민들의 반응은 화장실을 개방한 업소를 이용하겠다고 하여 민간화장실 개방은 업소들의 영업전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부산시 북구청에 가면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범선모형 화장실을 볼 수 있다.

공중화장실부터 모범을

청결하고 수준 높은 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중화장실부터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2년까지 총 276개소의 공중화장실 중에서 낙후된 화장실을 우선으로 129개소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중화장실 정비에는 공중화장실 정비컨설팅 자원봉사단(건축 및 인테리어 전문가 17명)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기본방향, 기술적인 사항 등을 수시로 자문해줌으로써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간이화장실(해수욕장, 유원지, 공원 등)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여 교체 중에 있으며 업소의 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해 화장실 콘테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문화행사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시민단체 주관으로 전국 디자인공모전(48개 대학, 380점 응모)을 실시하여 우수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전국우수 간이이동화장실 전시회(13개사)를 실시하며, 부산 아름다운 화장실 콘테스트(공공,



다중, 업소, 학교화장실 등 9개소 선정)등 다양한 화장실 문화행사를 개최합니다.

구·군과 협력하여

북구의 범선모형 및 전통 한옥모형의 화장실 서구의 나무그루터기형 화장실등 각 구·군의 이미지를 살린 공중화장실이 신축되고 있고 중구 및 수영구에서는 낙후된 공중화장실을 일제 정비하고 있으며, 부산진구 및 동래구에서는 재래시장 화장실을 정비하는 등 각 구·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참여가 큰 힘

매월 셋째주 목요일을 화장실 청결의 날로 지정하여 각급 기관·단체·업소 등이 화장실을 맡김히 청소하고 꽃 한 송이 놓기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제신문, PSB(부산방송), 부산YWCA가 주체하는 「화장실문화 만들기 시민선언식」이 있었으며 삼운회 교통봉사대의 공중화장실 기동점검 자원봉사단 운영 등 이제 부산의 화장실 문화 운동은 어느 도시보다도 민간운동으로 정착 되어가고 있습니다.



◀ 부산시 업체들은 LG정유를 선두로 청결한 화장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